

폼페이오 “2차 북미회담 세부사항 도출 중”

김영철 이르면 이번 주말 뉴욕 방문 고위급회담 가능성 비핵화·대북제재 등 논의 진전 이뤄지면 바로 정상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북미 고위급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의 ‘키맨’인 두 사람의 대화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북미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냐고 질문하자 “우리는 세부 사항을 도출(work out)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7~10일 중국 방문을 전후로 북미가 하루가 멀

다하고 제2차 정상회담 관련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우선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뉴욕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김 부위원장이 미국을 찾는 시기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중동 순방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6~17일 미국의 재외공관장 회의 이후 이르면 이번 주말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의 섯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지속되면서 미 정부의

인력 운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의 수행이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도 취소된 상태에서 회담까지 더 여유를 둘 수도 있다.

일각의 예상대로 2월 중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둘 사이에 의제 협상에서 확실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 높다. 아직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두고서는 입장 차이가 첨예하며,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핵무기 및 핵물질’의 폐기 논의와 핵 신고에 대해서는 북한이 현재로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밝힌 핵무기 ‘4불(不)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에 대해 미국이 양국관계 정상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런 만큼 북한이 이미 거론한 영변 핵시설 및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기와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 및 인도지원 재개 카드 등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미국 측이 제재 예외를 적용하려 할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회담에 있어서 핵탄두나 핵물질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협상의 목표와 관련, ‘미국인 안전’을 강조한 것이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운반하는 수단(ICBM)을 봉쇄하는데 최우선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분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65> 유종원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자는 자후로 산서성 하동 출신이다. 당 후기의 정치인, 문인으로 당송 8대가(唐宋八大家)의 일인이다. 순종 때 왕숙문 등과 함께 영정혁신을 주도했으나 실패했다.

고종 때 재상을 지낸 유석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다. 특히 문장이 뛰어나 당시 사람들은 그의 문장을 보고 “정밀하게 다듬어지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 화려함이 보석과 같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793년 진사과에 합격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집현전전자 남건위를 거쳐 감찰어사가 되었다. 805년 덕종이 죽고 태자 이송이 순종으로 즉위했다. 기거사인 겸 한림학사가 된 왕숙문을 중심으로 영정혁신(永貞革新)의 주도세력이 되었

자로 삼도록 했다. 왕숙문이 모친상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나고 왕비가 중풍에 걸려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다. 순종은 태자를 감국(監國)으로 명해 사실상 권력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유종원은 호남성 영주사마로 좌천되었으며 다시는 중앙 정계에 복귀할 수 없었다. 이왕팔사마(二王八司馬)로 불리는 개화파 8인이 모두 몰락하였다. 815년 유주자사로 옮긴 후 819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한유와 더불어 고문 부활 운동의 주역이었다. 형식미를 중시하는 변례체 대신에 한 대 이전에 애용된 고문을 되살리자는 운동으로 안사의 난 이후 학계의 지지를 얻었다가 한유, 유종원 때에 크게 호응을 받게 되었다. 영주사마로 좌천된 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옛시인 굴원을 본받아 불우한 심정을 글에 담았다. 우계시서

당후기 정치인·문인 영정혁신 주도

다. 태자시서 왕비, 감찰어사 유의석, 감찰어사이행 유종원, 이부시랑 위집의, 한림학사 능준 등이 개혁파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사가들은 이들을 이왕유유(二王劉柳)라 불렀다. 특히 위집의는 장안의 명문가 출신으로 진사과에 합격한 후 우유승, 한림학사가 되어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태자 이송은 위집의에게 왕숙문을 추천하며 잘 지낼 것을 희망하였다.

영정혁신은 원성의 대상이 된 경조윤 이설의 통주자사 좌천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오방세(五坊稅) 폐지가 이루어졌다. 황제의 사냥에 필요한 독수리, 매, 개 등의 사육 재원으로 징수된 세금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컸다. 궁궐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에서 시작된 궁시(宮市) 제도도 환관들의 가렴주구로 변질되었는데 이때 폐지하였다. 정식 세금 이외의 각종 부가세를 없애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궁녀 300인과 교방여야 600인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순종의 건강 악화로 영정혁신은 200여일만에 실패로 끝났다. 환관들의 병권을 박탈하려는 노력은 환관 구문진 등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왕숙문의 한림학사 직위가 박탈당했다. 내상(內相)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지위를 잃은 것이다. 환관 세력은 순종을 압박해 장자 이송을 태

(廢嫡詩序), 포사자설(排狄者說) 등을 지어 자신의 처지와 백성들의 과중한 세 부담 등을 문학을 통해 고발하였다. 친구 유의석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 유의석이 변방인 귀주성 파주로 좌천되자 노모를 모시는 친구의 처지를 격정해 자신을 대신 보내달라고 조정에 간청하였다. 재상 배도의 배려로 유의석은 광동의 영주로 옮겨가게 되었다. 간담상조(肝膽相照)라는 고사가 여기서 탄생했다. 한유는 유종원의 묘비명을 지으면서 평소에는 놀고 즐기는 것이 마치 간과 쓸개를 내보일 것처럼 하지만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 보았나는 듯 외면하는 세태를 고발한 내용이다. 유주에서 4년간 지내다가 819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유주자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폐습을 시정하였다. 빛을 감지 못한 사람을 노비로 삼는 약속을 없애고 현금에 상당하는 노동으로 채무를 탕감토록 개선했다. 유주 사람들이 그의 생전의 업적을 기려 사당을 지어 기념했다고 한다.

대표시로 ‘계거’ ‘강설’ ‘어옹’ 등이 남아 있다. 한유와 함께 한유(韓愈), 유의석과 함께 유유(劉柳)로 불리운다. 다산 정약용은 유종원의 고문 운동을 인정했지만, 좌천되었을 때 지은 글들은 “흐느끼고 구슬픈 언어”라며 낮게 평가한 바 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재점화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12일(현지시간) 경찰이 최루탄을 터뜨리며 ‘노란조끼’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다. 이날 수도 파리과 중부도시 부르주 등 프랑스 곳곳에서 열린 ‘노란 조끼’ 9차 집회에는 8만4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주 전인 지난 5일 8차 집회 규모 5만명보다 70%가량 급증한 수치다. /연합뉴스

美 눈폭풍 동진...최소 10명 숨지고 수십만가구 정전

주말인 12~13일(이하 현지시간) 폭설을 동반하며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던 겨울 폭풍인 ‘지아(Gia)’가 동부로 이동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소 10명이 숨진 가운데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 수백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는 등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에서 무려 1500마일(2400km)에 걸쳐 기다란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강력한 겨울

폭풍인 지아는 주말을 거치면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등 미 동부지역으로 옮겨갔다. 폭풍의 이동과정에서 눈 덮인 고속도로에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겨울폭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캔자스주와 미주리주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캔자스 동부와 미주리 서부에는 곳에 따라 최대 60cm까지 눈이 쌓이는 등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외의 대도시 지역은 30cm 가까운 눈이 내리면서 한때 10

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눈과 연관된 교통사고도 800건 이상 신고됐다. 캔자스주에서도 폭풍 관련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10만 가구 이상이 단절됐다. 수도인 워싱턴DC에는 곳에 따라 27cm 가까운 눈이 내리는 등 올해 들어 첫 폭설 사태를 맞았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의 일부 지역에도 15~18cm의 눈이 쏟아지면서 펄프 노턴 버지니아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정원 가꾸고 서예 즐기고 뇌물 수수 중부패 지도부 안락한 ‘럭셔리 감방생활’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로 수감된 중국의 전직 지도부가 일반 수감자라면 꿈조차 꿀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 후 중국 공산당 간부나 고위 관료 중 부패 혐의로 수감된 사람이 적지 않으며, 이들은 대부분 베이징 북쪽 친청 교도소에 수감됐다. ‘중국 제1의 교도소’로 불리는 친청 교도소는 육식을 갖춘 넓은 독방에 독서와 TV 시청이 허용되고, 특급호텔 주방장 출신의 요리사가 요리한 음식이 제공되는 등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후 낙마한 ‘부패 호랑이’의 대표 인물인 저우융강 전 상무위원은 교도소 내에서 정원 가꾸기를 즐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우융강은 시 주석 집권 후 축출됐고, 2015년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내 한적한 곳에 있는 그의 감방에는 자그마한 정원이 달려있고, 여기서 가꾼 과일과 호박 등을 면회 온 친지나 친구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

시 주석의 최대 정치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 전 총칭시 당 서기는 교도소 내에서 서예를 즐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뇌물 수수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왕리전도 서예를 즐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32억(평당 75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 010.3605.5000

